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30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청사시설과	담당자	• 신청사건립팀장 백승훈 ☎440-2216 • 담당자 이임주 ☎440-2217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에 36개사 등록... 건립 순항 중

- 5월 말까지 작품 제출받아 심사 거쳐 6월 최종 당선작 발표 -
- 7월 설계 용역 착수, 행정절차 거쳐 2025.3월 착공, 2027년 준공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36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한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작품을 제출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1단계)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2단계)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대지면적 69,091.1㎡에 연면적 80,417㎡의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2,1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2일부터 실시한 국제설계공모는 일반설계 공모·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건축사 자격이 있는 36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마쳤다.

시는 5월 30일까지 참가 등록업체들로부터 공모 작품을 제출받은 후 기술 심사와 2차례의 본심사를 거쳐 6월 19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총설계비 94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입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 범위에서 공모 보상금이 나눠 지급된다.

시는 설계업체 선정이 끝나면 오는 7월 중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VE)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985년 준공돼 노후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건립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참가 등록업체에서 참신하고 좋은 설계작품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건립사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